

물신의 노예로 전락한 수전노들의 초상

세계문학 속에 비친 수전노들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 흔히 이런 사람을 구두쇠 혹은 수전노라 부른다. 수전노에게 돈은 행복을 재는 척도다. 따라서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는 그들 삶에서 단연 행복의 맨 앞 자리에 놓이게 마련이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런 부류의 수전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전노들은 대개 돈에 대한 광기어린 집착과 인색함을 부여받고 당대 사회 혹은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탄생한다.

돈은 가장 믿을 만한 신앙이자 우상이다

성격희극의 대가로 알려진 몰리에르는 아르빠공이라는 전형적인 수전노를 창조한다. 작품의 제목 또한

〈수전노〉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전노 아르빠공은 파리에서도 이름난 알부자다. 하지만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지독한 구두쇠. 그에게 돈은 가장 믿을 만한 신앙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귀착점이다. 예컨대 그가 결혼저령기의 자녀들을 위해 혼처를 물색하는 장면을 보자. 그는 자녀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상대가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딸은 돈 많은 늙은 영감과, 아들 또한 돈 많은 과부와 결혼시키려 한다. 이쯤 되면 혈육조차 그의 돈에 대한 지독한 광기에 백기를 들 정도다.

〈수전노〉에서 그려진 아르빠공은 돈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일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광기와 병적인 집착이 오히려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무 일도 안 시킨다고 말을 굶기거나, 남몰래 마당 한켠에 돈을 묻어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생명을 앗는 모습 등은 오직 물질적인 가치에만 몰입하는 불쌍한 한 인간의 웃지 못할 희극성을 꼬집는다.

몰리에르가 역설과 풍자로 돈의 부조리함을 드러낸 반면, 찰스 디킨스는 좀더 진지하고 교훈적인 관점에서 돈의 가치를 들여다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스크루지는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유평화, 삼성출판사)에서 창조해낸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일견 친근하기도 한 수전노의 전형이다. 디킨스는 이 탐욕스런 늙은 수전노에게 “아무리 폭설이 쏟아져도 그보다 더 끈질길 수는 없었으며 아무리 비가 퍼부어도 그보다 더 사나울 순 없었다”고 신랄한 냉소를 퍼붓는다. 하지만 스크루지를 과거·현재·미래의 세 유령과 대면시켜 마침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만든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순박하던 스크루지가 인색한 구두쇠가 돼가

는 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

면 스크루지가 가난했던 유년기에서 비롯된 결핍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장년기에 이른 스크루지가 스스로 “황금이라는 우상”을 세우게 하는 등 돈에 대한 집착을 낳았으며, 노년기의 “음험하고 제생각만 고집”하는 딱 막힌 인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 되기도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박영근, 민음사)에 나오는 고리오 영감도 대표적인 수전노다. 하지만 고리오

영감의 성격은 아르빠공, 스크루지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일개 제면회사 직원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 성장한 전형적인 벼락부자인데, 불행히도 자신이 모은 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자각이 없는 인물이다. 그에게 돈은 오로지 아내와 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배타적인 수단일 뿐이다. 특히 고리오 영감은 아내가 죽은 후 두 딸들에 대해 무분별할 정도의 헌신과 집착을 보인다. 자신에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가 딸들의 번덕스럽고 화려한 구미를 맞추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처분할 정도다. 발자크는 돈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까지 세세히 거론하기로 유명하다. 이 작품에서도 그는 고리오 영감이 몰락하는 과정을 ‘1천2백프랑→9백프랑→45프랑’ 등 고리오 영감이 내는 하숙비의 변화과정과 관련지어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유명한 수전노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베니스의 상인〉이 강한 종교적 색채 속에 인간 존엄성이란 주제를 담아낸 만큼 샤일록의 성격 또한 복합적이다. 샤일록은 이 작품에서 기독교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이교도에게 쏟아지는 갖은 핍박을 견디며 부를 축적한 악덕 유대상인으로 그려지고, 그 대척점에 도덕적이고 청렴한 상인 안토니오가 등장한다. 따라서 샤일록에겐 물질적 성공을 통한 자기정체성 확립에 대한 열망,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중층적으로 자리잡는다. 때문에 샤일록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안토니오에게 굳이 돈이 아닌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을 억압해온 이교도들에 대한 저항이자 민족적 울분의 의도적인 표출로도 읽을 수 있다. —박옥순 기자